전시 EXHIBITION

MMCA×LG OLED 시리즈 2025—추수 아가몬 대백과: 외부 유출본

MMCA×LG OLED Series 2025—TZUSOO
Agarmon Encyclopedia: Leaked Ed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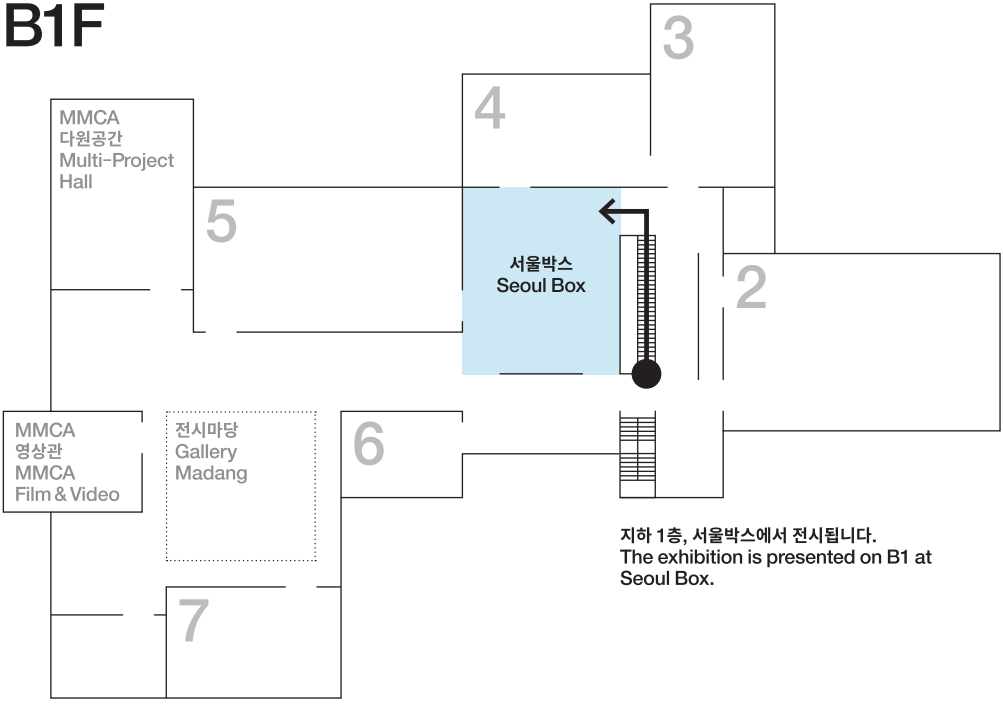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서울박스
MMCA Seoul, Seoul Box

2025.8.1.–2026.2.1.
www.mmca.go.kr

QR코드를 스캔하여
전시해설을 들어보세요.

Scan QR codes to listen
exhibition audio guide.

B1F



지하 1층, 서울박스에서 전시됩니다.
The exhibition is presented on B1 at Seoul Box.

추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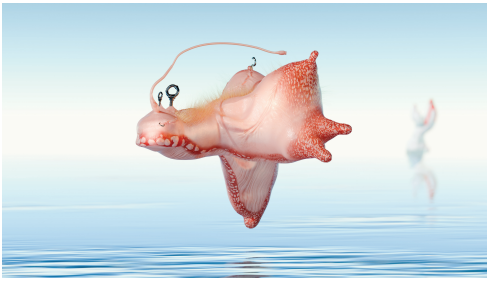
추수는 1992년 서울에서 태어나 현재 베를린과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홍익대학교 판화과 및 예술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슈투트가르트 조형예술대학에서 학석사 통합 과정 디플롬을 마친 뒤 현재 동 대학에서 강의 중이다.

작가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로서 사이버 생태계와 현실이 교차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탐구하고, 영상, 설치, 조각, 회화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작업한다. 그의 세계관은 오랫동안 품어온 '엄마가 되고 싶은 욕망'과 '예술가로서의 정체성' 사이의 충돌에서 비롯되며, 자신만의 아바타와 몬스터를 만들고 돌보는 과정을 통해 섹슈얼리티, 젠더, 디지털 시대의 차별 문제 등을 풀어낸다. 대표작으로는 버추얼 아바타의 내면을 다룬 〈에이미의 멜랑콜리〉 시리즈, AI 시대의 예술가 정체성을 질문한 〈달리의 에이미〉, 독일 내 차별적 등록금 제도를 비판한 〈나는 이곳을 졸업하는 것이 부끄럽다〉 등이 있다. 또한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제작 스튜디오 '프린세스 컴퓨터'의 감독으로서 조용필 〈Feeling Of You〉, 릴체리 〈비타민 B〉, SAAY 〈Omega〉 등의 작업을 감독 및 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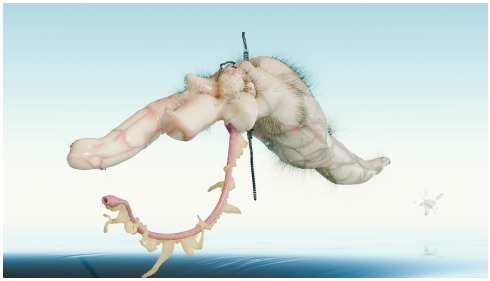
TZUSOO

Born in Seoul in 1992, TZUSOO is currently based in Berlin and Seoul. A graduate of Printmaking and Art Studies at Hongik University, she received a Diploma in Fine Art at the State Academy of Fine Arts, Stuttgart, where she currently lectures.

A member of the digital generation, TZUSOO explores new identities at the intersection of cyber ecosystems and reality, working across media including video, installation, sculpture and painting. Her worldview is based on the clash between her long-held desire to become a mother and her identity as an artist, and she resolves issues of sexuality, gender, and discrimination in the digital age through a process of creating and caring for her own unique avatars and creatures. TZUSOO's key works include the *Aimy's Melancholy* series, which addresses the inner world of a virtual avatar; *Dalle's Aimy*, which questions the artist's identity in the age of AI; and *I'm Ashamed to Have Graduated Here*, which criticizes Germany's discriminatory tuition fee system. As director of animated music video production studio Princess Computer, she has also directed and produced works including Cho Yong Pil's *Feeling Of You*, Lil Cherry's *Vitamin B*, and SAAY's *Omega*.



추수, 〈살의 여덟 정령—태〉, 2025, 영상, 컬러, 사운드, 13분 6초. 음악: 마르텐 보스 / 3D 그래픽 팀: 로이드 마크바트, 지언 쾨니히 / 에디팅 어시스턴트: 김소희
TZUSOO, *The Eight Spirits of Flesh—TAE*, 2025, video, color, sound, 13min. 6sec. Music: Maarten Vos / 3D Graphics Team: Lloyd Marquart, Zion König / Editing Assistant: Sohee Kim



추수, 〈살의 여덟 정령—간〉, 2025, 영상, 컬러, 사운드, 13분 6초. 음악: 마르텐 보스 / 3D 그래픽 팀: 로이드 마크바트, 지언 쾨니히 / 에디팅 어시스턴트: 김소희
TZUSOO, *The Eight Spirits of Flesh—GAN*, 2025, video, color, sound, 13min. 6sec. Music: Maarten Vos / 3D Graphics Team: Lloyd Marquart, Zion König / Editing Assistant: Sohee Kim

«아가몬 대백과: 외부 유출본»

전시 «아가몬 대백과: 외부 유출본»은 조각 설치 〈아가몬〉과 이를 둘러싼 두 개의 영상 작품 〈살의 여덟 정령—태〉와 〈살의 여덟 정령—간〉으로 구성된다. 창조와 탄생에 긴밀히 연결된 섹슈얼리티를 디지털 생태계와 물질 세계 사이에서 교차시키며 작가만의 창작 언어로 풀어낸다. 전시는 엄마가 되고 싶은 욕망을 예술로 전이한 작가 추수의 개인적 서사를 담는 동시에, 디지털 세계를 살아가며 육체의 존재를 인식하는 오늘날 이행의 시대를 반영한다. 관람객은 아가몬과 정령들이 함께 구축한 기묘한 생태계 안으로 초대된다.

〈아가몬〉

〈아가몬〉은 디지털 세계에서 현실의 물질 세계로 이행한 조각 작품이다. 예술가로서의 삶을 선택하며 임신과 출산을 유보한 작가는 예술 작품을 마치 자신의 아이처럼 창조하고 돌보는 방식을 택했다. 아가몬은 해조류 성분인 우뭇가사리(agar)와 이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가는 아가몬을 위한 〈아가몬 인큐베이터〉를 함께 제작한다. 인큐베이터는 물, 습도, 조명을 조절해 아가몬을 위한 생태 환경을 조성하고, 이끼가 자라기에 적절한 조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가몬의 몸은 서서히 늙거나 부패하지만, 그 위에 이끼가 계속 자라나는 모습은 생명과 재생의 순환을 상징한다. 소멸과 생성이 반복되는 이 과정 속에서 아가몬은 하나의 살아 있는 생태계가 된다. 아가몬은 수정과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은 성적 에너지가 응축되어 태어난 존재다. 출산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된 사회에서, 생명을 만드는 방향으로만 향하던 성적 에너지는 더 이상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흩어지며 다른 형태로 분화한다.

Agarmon Encyclopedia: Leaked Edition

Agarmon Encyclopedia: Leaked Edition comprises *Agarmon*, a sculptural installation, and *The Eight Spirits of Flesh—TAE* and *The Eight Spirits of Flesh—GAN*, two video works. This work places sexuality, intimately connected to creation and birth, at the intersection of the digital ecosystem and the material world, interpreting it in the artist's unique creative language. The exhibition contains TZUSOO's personal narrative of her desire to become a mother and reflects today's transitional age between digital and physical existence. Viewers are invited into the peculiar ecosystem built by Agarmon and the spirits.

Agarmon

Agarmon is a sculptural work transferred from the digital world to material reality. Having put off pregnancy and childbirth while living her chosen life as an artist, TZUSOO has adopted a method of creating and caring for an artwork as if it were her own child. Agarmon is made of agar, a derivative of seaweed, and moss. The artist has also designed the *Agarmon Incubator* for Agarmon. The incubator creates a living environment for Agarmon by regulating water, humidity and lighting levels, while maintaining conditions that allow moss to grow. The continued growth of the moss on Agarmon's body as the latter slowly ages or decomposes with the passing of time symbolizes cycles of life and rebirth. Amid this process of repeating extinction and creation, Agarmon becomes a single, living ecosystem. Agarmon was born of condensed sexual energy that has not led to fertilization and childbirth. In a society where having children has become optional rather than compulsory, the sexual energy once oriented solely toward the creation of life no longer flows in a single direction but is dispersed and divided into various forms.

〈살의 여덟 정령〉

〈살의 여덟 정령—태〉와 〈살의 여덟 정령—간〉은 두 개의 초대형 스크린을 통해 디지털 생명체들이 등장하는 영상 설치 작업이다. 생명 창조에 대한 근원적인 욕망과 맞닿아 있는 섹슈얼리티를 주제로, 창조적 에너지가 디지털 세계에서 어떻게 형상화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이 작품은 아가몬 세계의 또 다른 단면을 드러낸다. 이 세계에는 팔괘(八卦)를 관장하는 여덟 개의 정령이 존재하며, 각 정령은 하나의 방위를 담당하고 무질서하게 흩어진 성적 에너지 속에서도 나름의 질서를 구축한다. 정령들은 서로 다른 감각과 성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충돌하고 교차하면서 불안정한 역동과 미묘한 조화를 만들어낸다.

서울박스 공간의 두 스크린은 북동쪽과 남쪽에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여덟 정령 중 '태(兌)'와 '간(艮)'을 깨우는 포털 역할을 한다. 나머지 여섯 정령인 건(乾), 곤(坤), 진(震), 손(巽), 감(坎), 리(離)는 각각의 섬에 잠들어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태'는 질병의 정령으로, 몸 곳곳에 상처와 흉터를 지닌 모습으로 등장한다. '간'의 세머리는은 세 가지 섹슈얼리티인 규범적 정상성, 퀴어, 여성성을 상징하지만, 이들 중 규범적 정상성만이 온전히 드러나고 나머지는 왜곡되거나 불완전하게 표현된다. 이는 사회가 규정하는 섹슈얼리티의 기준과 편향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장치이기도 하다. 두 정령은 서로 다른 성향과 역할을 지니면서도, 두 개의 스크린을 넘나들며 하나의 서사를 교차적으로 구성한다. 관람객은 이들의 상호작용을 따라가며, 질서와 혼돈, 억압과 욕망, 물리세계와 디지털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감각을 경험하게 된다.

The Eight Spirits of Flesh

The Eight Spirits of Flesh—TAE and *The Eight Spirits of Flesh—GAN* are video installations in which digital creatures are shown on two huge screens. Based on a theme of sexuality that touches on the fundamental desire to create life, the works explore the forms that creative energy can take in the digital world. These works reveal a different aspect of Agarmon's world. This world is inhabited by eight spirits that control the Eight Trigrams; each spirit is in charge of a different direction, building its own order amid disordered and dispersed sexual energy. The spirits possess different senses and sexual characteristics creating unstable dynamics and subtle harmonies as they collide and inters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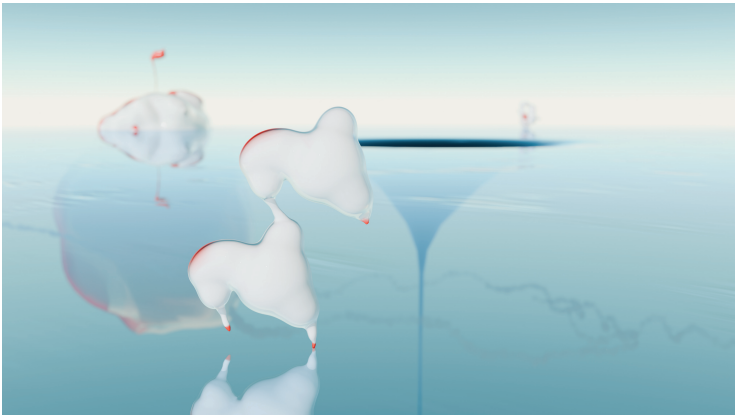
The two screens in the Seoul Box are arranged in the northeast and south of the space, respectively, functioning as portals that awaken TAE and GAN, two of the eight spirits. The other six spirits—GEON, GON, GAM, SON, JIN and LI—remain asleep. TAE, featured in this work, is the spirit of illness, and appears with a body covered in scars. GAN's three heads symbolize three sexualities: normalcy, queerness and femininity. But among these, only normalcy appears complete, while the others are depicted in distorted or incomplete forms. This also functions as a device for visualizing societal norms and biases regarding sexuality. The two spirits, while possessing different roles and tendencies, cross between the two screens, creating a single narrative as they intersect. Viewers following this interaction experience complex sensations on the boundaries of order and chaos, oppression and desire, and the material world and the digital.

MMCA×LG OLED 시리즈 2025: 추수
«아가몬 대백과: 외부 유출본»

국립현대미술관과 LG전자가 협력하여 처음 선보이는 MMCA×LG OLED 시리즈는 디지털 기술과 현대미술이 만나는 자리에서 더 나아가 오늘날 동시대 시각예술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는 미래지향적 프로젝트이다. 기술이라는 매개를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세계를 더욱 넓히고, 예술가들이 들려주는 새로운 서사와 창발적 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MMCA×LG OLED 시리즈는 예술계 전문가 추천과 심사를 거쳐 매년 한 명의 작가를 선발하여 서울관 중심 공간인 '서울박스'의 특성을 반영한 신작을 선보인다. 공간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독창성, 실험정신을 고루 갖춘 작가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과 기술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미술관의 풍경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시리즈의 첫 번째 작가로 선정된 추수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감수성과 동시대의 정서를 날카롭게 포착하며, 사이버 생태계와 물리적 현실이 맞닿는 경계에서 독창적인 미적 언어를 구축해왔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그가 오랜 시간 형성해온 세계관과 감각을 집약시키며, 생명과 욕망, 그리고 끊임없는 순환이라는 본질적인 주제를 기술 매체와 물질적 조형을 통해 긴장감 있게 펼쳐낸다.

«아가몬 대백과: 외부 유출본»이라는 전시 제목은 작가가 창조한 생명체 '아가몬'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이 일종의 연유로 인간 세계에 드러나기 시작한 정황을 담는다. 서울관 모든 전시실을 연결하는 동선의 중심에 위치한 서울박스는 관람객에게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 생명력과 소멸, 그리고 다시 태어남이 뒤엉킨 낯설면서도 유기적인 공간으로 변모한다. 영속적인 디지털 세계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조각이 교차하는 생태계로 확장된 서울박스에서, 관람객은 생명 창조와 연결된 여성의 욕망과 자연의 순환,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파생하는 다양한 감정과 에너지를 마주한다. OLED 스크린의 정교한 색채 표현력과 해상도는 디지털 매체를 통해 장인적 조형언어를 구축해온 작가의 미학적 태도와 강한 시너지를 발휘한다. 서울박스를 가득 채운 이 감각의 풍경은 기술 너머 예술이 감지해야 할 것들—몸, 관계 맺음, 재생의 힘, 그리고 불완전한 (완벽하지 않기에 아름다운) 생명성—에 대해 질문을 건넨다.



추수, 〈살의 여덟 정령〉 '여덟 섬' 스틸 이미지, 2025
TZUSOO, Still Image from *The Eight Spirits of Flesh —The Eight Islands*, 2025

MMCA×LG OLED Series 2025: TZUSOO
Agarmon Encyclopedia: Leaked Edition

The MMCA×LG OLED Series, making its debut this year as part of a collaboration between MMCA and LG Electronics, is a futuristic project that goes beyond the intersection of digital and contemporary art to explore possibilities for expansion in visual art today. The project aims to use technology as a medium to broaden the world that we can sense, and to share new artist narratives and emergent moments.

The MMCA×LG OLED Series exhibits commisioned works by a single artist, selected through recommendation and evaluation by experts from the art world, in the Seoul Box, the central space at MMCA's Seoul branch. The chosen artist's works are designed to reflect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Seoul Box. By offering opportunities to artists with a deep understanding of space, originality and a sense of experimentation, MMCA strives to create futuristic museum landscapes forged by art and technology together. TZUSOO, selected as the inaugural artist of this series, deftly captures the sensibilities and contemporary emotions of the digital native generation, and has built an original aesthetic language at the boundary of the cyber ecosystem and physical reality. In this exhibition, the artist integrates her worldview, form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and senses, offering a compelling illustration of the fundamental topics of life, desire and endless circulation through technological media and material forms.

The exhibition title, *Agarmon Encyclopedia: Leaked Edition*, refers to a situation in which a worldview centered on Agarmon, an organism created by the artist, has for some reason begun appearing in the human world. Seoul Box, located at the hub of MMCA Seoul's exhibition halls, abandons its identity as a familiar venue, transforming into a strange yet organic space where life, extinction, and rebirth intertwine. Within the Seoul Box, expanded into an ecosystem where a perpetual digital world meets sculptures that evolve over time, viewers encounter female desires relating to the creation of life, cycles of nature, and the myriad emotions and energies derived from these processes. The faithful color reproduction and resolution of OLED screens form a powerful synergy with the aesthetic approach of the artist, who has constructed a virtuoso sculptural language using digital media. This sensual landscape, filling the Seoul Box, questions the things that transcend technology and must be sensed by art: bodies, bonding, the power of regeneration, and imperfect life (beautiful for its imperfection).

추수, 〈아가몬 5〉, 2025, 우뭇가사리, 이끼, 피어싱, 15×13×18cm. 협업: 독립정원
TZUSOO, *Agarmon 5*, 2025, agar, moss, piercing, 15×13×18cm. In Collaboration with Independent Garden

관람시간
월, 화, 목, 금, 일: 오전 10시–오후 6시
수, 토: 오전 10시–오후 9시

입장료
무료

주차
운영시간(매일) 오전 8시–오후 11시
시간당 4,200원

주최
국립현대미술관

후원
LG OLED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03062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0(소격동 165)
+82 2 3701 9500

Opening Hours
Mon, Tue, Thu, Fri, Sun: 10:00–18:00
Wed, Sat: 10:00–21:00

Admission Fee
Free

Parking
Daily Hours: 08:00–23:00
4,200won per hour

Organized b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Sponsored by
LG OLED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03062) 3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165, Sogyeok-dong)
+82 2 3701 9500

www.mmca.go.kr
twitter.com/mmcakorea
facebook.com/mmcakorea
instagram.com/mmcakorea
youtube.com/mmcakorea
tv.naver.com/mmca

국립현대미술관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LG OLED